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기술인재 육성에 나선 이유

만우 조흥제 스칼라십 기술인재를 미래세대 리더로

배관공과 전기기사. 이른바 ‘뿌리 산업’의 기술 전문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으로 숙련 기술직 수요가 수십만 단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골드러시’에 비유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포천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지난해 2427억 달러(약 353조원)에서 2032년 5848억 달러(약 852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공급이 2010년 이후 연평균 20.3% 증가했다.

데이터센터는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공장 역할을 한다. AI가 산업의 자동화를 이끈다지만, AI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결국 숙련 기술인력이 없다면 AI 성장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켄 골드버그 UC버클리 산업공학과 교수 겸 AI연구소 위원장은 “골드러시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 AI 확산에서도 반도체와 인프라 공급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 공급이다. 그간 블루칼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탓에 현장 숙련 기술자 부족과 고령화 현상을 국내외 모두 겪고 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이러한 현장 기술자를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장학사업 ‘만우 조흥제 스칼라십’을 지난해 본격 출범했다.

올해 1기 수료생 20명을 배출했고 지난 8월에는 규모를 키워 2기 장학생 30명을 선발했다.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장학사업이 학력 기반인 데 반해 ‘현장 기술’을 갖춘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차별점을 뒀다”며 “국내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고 육성하면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현장 기술력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의 가치를 복원하다

‘만우 조흥제 스칼라십’은 민간 재단에서 주도하는 국내 유일의 기술인재 장학사업이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흥제(1906~1984)가 강조한 ‘기술중심, 사람중심’의 기업가정신을 이어 산업현장의 실



무형 기술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만우 조흥제는 효성과 한국타이어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우리나라 창업 1세대다. 그는 1962년 효성물산을 시작으로 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했고, 1971년에는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최초 부설연구소인 효성기술원을 세워 소재기업 효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평소 “몸에 지닌 작은 기술이 천만금의 재산보다 낫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향후 신기술도

입과 공장 증설에 제약받지 않으려면 독자 기술로 공장과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사업은 한국폴리텍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조흥제 회장의 기술중심, 사람중심, 너트라도 포기하지 않는 만우(晩愚·늦되고 어리석다) 정신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주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실무

형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 연간 4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선발된 2기는 장학생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도 6억원 수준으로 키웠다. 장학생에게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자기계발비가 지급된다. 또 인문·사회·경제 등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매월 리더십 교육과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했다.

지난해 첫 장학생 모집에는 전국 25개 한국폴리텍 캠퍼스에서 106명이 지원해 경쟁률 5.3대1을 기록했다. 2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선아(27)씨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다가 진로를 바꿔 인천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과에 입학했다. 그는 “나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변화하는 사회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며 “현장 기술직이 아직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직종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명장을 꿈꾸는 청년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에 다니는 1기 장학생 이지훈(26)씨는 최근 현대차에 합격해 출근을 앞두고 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폴리텍대에 들어가 기계 시스템을 전공했다. 이씨는 “강의실과 실습장, 기숙사를 오가는 반복된 생활에서 스칼라십 프로그램이 큰 자극이 됐다”며 “전국에서 선발된 다른 장학생과 함께 매달 교육을 받고 의견을 나누면서 기술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에 입학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선택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이지훈씨처럼 다른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폴리텍대에 입학하는 경우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입학생 평균 연령은 지난 2019년도 21세에서 매년 조금씩 올라 2024학년도에 23.7세로 집계됐다. 만 23~30세 입학생 비율도 43.4%로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들었다. 같은 기간 타대학 중퇴, 졸업 후 폴리텍대에 입학한 학생 비율도 15%에서 23.3%로 크게 늘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4면 “만우 조흥제 스칼라십”으로 계속

아시아 전문가들 ‘고령친화 사회’ 위한 해법을 공유하다… 2025 ALF 성료

‘2025 아시아 롱제비티 포럼’ 개최

“고령화는 전 세계적 추세지만 실질적인 진양지는 아시아입니다.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교육·의료·복지·금융시스템 등 전 영역을 다시 설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함께 묻고 답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아시아 롱제비티 포럼(Asian Longevity Forum, ALF)’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루스 샤피로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APS) 대표는 “장수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아시아가 먼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버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올해 ALF는 ‘초고령사회, 환희인가 비극인가’라는 주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아시아 롱제비티 포럼’ 현장 이경호 기자

로 진행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세리 온을 이사장이 축사를 진행했고 기업·비영리·학계·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콩 싱크탱크 CAPS의 ‘고령친화 사회 구축을 위한 아시아의 여정’ 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한국·중국·일본·홍콩·태국·대만 등 아시아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신 연구로, 더버터 홈페이지에서 한국판과 영문판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오전 아시아 세션에서는 중국 CAJ시니어케어의 텐 환관 상임이사, 홍콩 저산재단의 아이린 소 상임이사, 태국 사회적기업 치와밋의 라이라타나 랑싯폴 대표 등 글로벌 전문가들이 무대에 섰다. 오후에 진행된 한국 세션과 주제 세션에서는 국내 학계와 정책 전문가 12명이 연달아 장수사회의 경제·기술적 관점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초고령사회’에서 ‘장수

사회’로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문이 ‘고령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서 ‘길어진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향후 ALF를 고령친화 사회 구축을 위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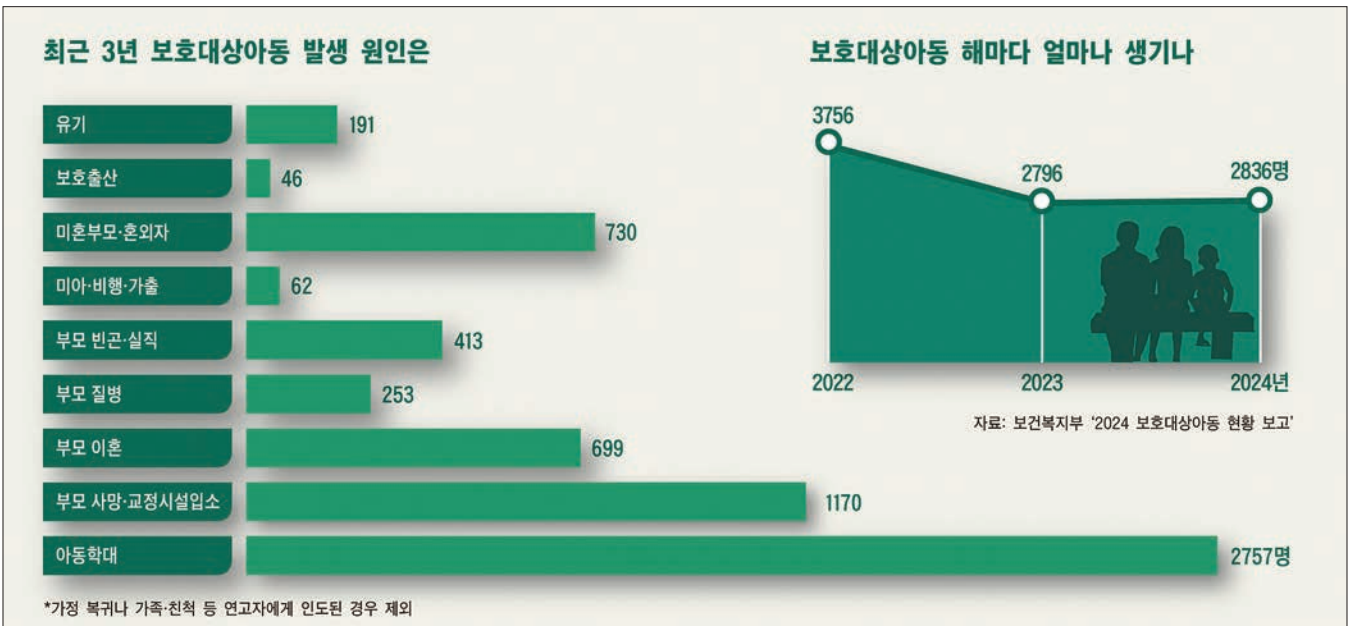
생활고로 보육원 가는 아이들 없도록... ‘통합 솔루션’ 찾는다

초록우산 ‘주거 기반 돌봄·자립 지원’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한 김민주(가명·30)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육아를 시작했다.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을 얻고, 야간 택배일도 구했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초반에는 지인들에게 돌아가며 아이를 맡겼지만, 매번 부탁하기는 어려웠다. 정부 지원도 마땅찮았다. ‘아이들봄 서비스’는 도우미 배정에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늦은 밤에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웠다. 이와중에도 주거비는 매달 나갔다. 혼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방법이 없었다. 민주씨는 결국 자녀를 가정위탁하기로 했다. 그는 “누군가 잠시라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주거비와 생계를 유지할 소액의 지원금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이 조금 모이면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해마다 약 2000명의 아이가 부모와 헤어진다. 이유는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빈곤과 실직 등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분리되는 아동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김승환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 과장은 “한부모·청소년부모·미혼부모 등 위기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매년 700여 명의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고로 헤어지는 일, 막을 수 있다



위기 가정은 ▶불안정한 주거 ▶돌봄 공백 ▶취업 기회 감소 ▶소득 저하 ▶주거비 부담 심화가 맞물리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다. 일을 멈추면 다시 경제적 위기가 닥친다.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학업이 중단돼 저학력·저소득의 길로 내몰린다. 소득이 줄면 주거 불안정이 커지고, 또다시 생활의 기반이 흔들린다. 김승환 과장은 “위기가정이 직면한 문제는 주거·양육 등 개별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다.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진 한부모가구 비율은 지난해 50.7%에 달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위소득 48% 이하’는 근로 연령대인 아동 가구가 충족하기엔 지나치게 낮다. 한부모 가구가 2인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서울 기준 월 39만5000원이 지급된다. 고시원이나 모텔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45.6%, 청소년부모의 59.1%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정보를 얻는다. 김승환 과장은 “주민센터가 한부모·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자세하고 통합적인 안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찾은 순환근무로 공공 전달체

계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제도를 알게 되더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미혼모 이정운씨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선발 기준도 조금씩 달라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거 기반 지원으로 원가정 보호

전문가들은 주거와 돌봄, 자립을 하나의 체계로 엮는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초록우산은 지난해부터 송아영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아동 중심의 위기 가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지원의 출발점은 ‘집’이다. 아이들이 성장할 안정된 공간이 확보돼야 돌봄도 부모의 자립도 가능하다. 위

기가정이 지역 내 공공임대나 긴급지원 주택에 입주하면 동시에 사례관리사와 돌봄 인력이 배정돼 아동의 일상 돌봄과 보호자의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캠페이커 등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인 ‘긴급지원 주택’이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대상자가 1년 정도 주택에 거주하며 통합 사례관리를 받고, 학업 복귀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이후 자립형 주거 지원으로도 연결된다.

법과 제도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의 경우 주거는 국토교통부, 돌봄은 여성가족부, 복지와 생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연구진은 제안한다. 송아영 교수는 “아동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아동복지법·주거급여법 등 관련 법률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주거 안정과 돌봄·자립 지원이 결합할 때 비로소 아동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고, 부모 또한 자립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가정의 형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1조 모이면 지역이 바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소멸위기 지역인 전남 곡성에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생겼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90년 전통의 광주극장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후원이 끊기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던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은 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방 재정 부족으로 미뤄졌던 지역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만들어낸 변화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WEGIVE)’ 등에서 마음에 드는 모금 프로젝트를 선택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다. 곡성 소아과, 광주극장,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도 이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정현(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더 확대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0일 만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확대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고향사랑기부금의 성장세는 어떤가. “2023년 650억원에서 2024년 879억원으로 35% 정도 늘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모금을 하고 이 기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모금’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건 처음이다.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로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지방교부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는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사용처에 제한이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약 7대3 정도인데, 6대4는 돼야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 기부금이 늘까.

“스토리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실제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통해 매년 10조원을 모금해 지역을 살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

는데. “지역에 가면 소아과 병원이 없는 곳이 많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인근 도시로 왕복 두세 시간씩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한다. 지난해 전남 곡성군이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5개월 만에 3억원이 모였다. 이 기금으로 곡성군 보건의료원 내에 소아과를 개원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유기견 안락사 제로(0)’ 프로젝트, 대전 중구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프로젝트, 충남 부여의 ‘참전용사 집수리’ 프로젝트에도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아직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재원은 아니지만, 기부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 기대감이 크다.”

기획력이 중요하겠다.

“기획은 지자체보다 민간에서 더 잘한다. 지자체들이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만족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전액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 여기에 기부금의 30% 가격에 달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부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난 4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민간 플랫폼 활성화 ▶재단·재단해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이 포함

됐다.

재난 시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을 모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올해 3월 영남 산불 때 한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 주민들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재난이 발생하면 의연금·구호물품이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뭘까. 바로 ‘슬리퍼’다. 하지만 쏟아지는 구호물품 중 어디를 봐도 슬리퍼는 없다. 지자체가 직접 모금을 하면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디까지 보는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약 2000만 명. 이 중 절반이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연 1조원이 된다. 엄청난 잠재력이다.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은 인구 8500명 가운데 이주자가 50%에 달한다. 고향납세제를 통해 기부한 사람들을 ‘주주’로 인정해 지역의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게 했고, 이게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관계인구’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스마일게이트, 사각지대 아동을 돕는 세 가지 접근법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10년의 실험

“6년 전이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생후 6개월된 아기를 맡아줄 수 있냐고요.”

오창종 아이들세상합박웃음 대표는 가을이(가명)를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다.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등록 아동이였다. 가을이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부모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때가 됐을 때도 데려갈 보호자가 없었다. 그렇게 가을이는 오창종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일하우스’로 오게 됐다. 오창종 대표는 “경기도 안산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스마일하우스는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하 희망스튜디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돌봄 시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특성에 맞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다. 지금까지 전국에 설치된 ‘스마일하우스’는 총 8곳이다.

가을이가 머무는 안산의 ‘스마일하우스 2호’는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전국 최초의 특화 그룹홈이다. 전세금과 의료비, 인건비를 제공하고 아동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 지원도 병행했다. 지난 8년간 필리핀·나이지리아·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자립하거나 새 가정을 만났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그룹홈 외에도 ▶학대 피해 여아를 위한 그룹홈(1호) ▶경계선지능 아동 특화 그룹홈(3호)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4호) ▶경계선지능 아동 치료 특화 그룹홈(5·6·7호) ▶무연고 아동 그룹홈(8호)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스마일하우스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사각지대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희망스튜디오는 ‘통합 솔루션 개발’ ‘컬렉티브 임팩트’ ‘제도화’ 등 세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첫 번째 접근: ‘통합 솔루션’ 구축

희망스튜디오는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통합 지원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룹홈 안에서는 ▶심리적 안정 ▶사회성 발달 ▶경제적 자립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그룹홈 아이들은 학대 경험 등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내면의 분노와 우울을 마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이 필수다. 박재희 희망스튜디오 CSR컨텐츠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심리치료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결핍과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스마일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누적 1만 5941회의 상담이 이뤄졌다.

‘스마일 멘토’ 프로그램은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스마일게이트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을 만나 새로운 롤모델을 갖게 해준다는 취지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아동의 특성과 시설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매월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캠핑, 카페 방문 등 체험활동을 한다. 스마일하우스 2호를 운영하는 오창종 대표는 “임직원들은 생일을 맞은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가족들과 소풍을 가는 등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인연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연 후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 이어진다. 스마일게이트 임직원과 게임 유저, 일반 시민 누구나 ‘스마일 도너’로 참여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2명의 도너가 매달 3만원을 후원하면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10만원과 합쳐 월 16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저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 773명의 아동에게 누적 11억 90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전달됐다.

두 번째 접근법: 컬렉티브 임팩트

사각지대 아동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희망스튜디오는 민간·공공·기업·시민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해법을 만드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희망스튜디오는



플랫폼의 중심에서 전반적인 기획을 맡고, 그룹홈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영역에 설립 초기에 드는 주거비용과 인건비, 생활비 등을 모두 희망스튜디오가 지원한다. 임직원 멘토링, 결연 후원 등 사회공헌 인프라도 제공한다. 현장의 기관들은 아동 보호와 돌봄을 맡는다. 개별 사례를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른 협력기관에 공유한다.

공공 부문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스마일하우스 5·6·7호에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치료실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해

상담과 놀이, 미술치료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희망스튜디오와 2022년부터 3년간 경계선아동을 위한 헬스·트레킹 등 신체활동 기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했다.

이밖에 위메이드플레이·어썬피스트·타파스 등 게임 기업이 게임 내 기부와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게임 유저와 시민들은 결연 후원과 캠페인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의 동력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접근법: 제도화

현장에서 출발한 스마일하우스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스

마일하우스 2호’는 정부 인가를 받기까지 수년간 설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 그룹홈으로는 최초로 정부 인가를 받아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제도화된 지원을 끌어냈다. 그전까지는 미등록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법적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스마일게이트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양육시설의정서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그룹홈 심리치료 예산은 2022년 하반기 1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원으로, 올해는 전체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8억원으로 확대됐다. 성남시에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었지만, 2020년 ‘스마일하우스 5·6·7호’와 함께한 프로젝트를 계기로 취약계층 경계선지능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대학교 연구진과 느린학습자 평가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지역 그룹홈과 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박재희 팀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과 전문가들이 시범모델을 만들고, 공공이 제도와 예산으로 확산시키는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예방’이다. 재단은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스마일하우스를 ‘위기 가정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파일럿 사업을 운영해 온 현장의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모델을 실험한다. 이제는 ‘사건 이후 개입’보다 학대와 방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건 이전 위험요인 감소’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사회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파트너와 기부자들 덕분에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확산하는 플랫폼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지는 더버터 기자

바리스타 호연씨가 그룹홈 아이들을 돕는 이유



바리스타로 일하는 이호연씨는 2022년부터 ‘스마일도너’로 그룹홈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스마일도너’ 이호연씨 인터뷰

‘보육원에 살면서 왜 외식을 해?’ 이호연(29)씨는 “온라인에서 가끔 이런 댓글을 볼 때면 화가 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호연씨는 4년째 스마일하우스에 사는 남자아이 한 명을 후원하고 있다. 축구선수가 꿈이라는 이 아이에게 매달 3만원을 보낸다.

-기부를 시작한 계기는요.

“어릴 때부터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요. 2021년 연말에 게임 ‘로스트아크’ 유저들이 게이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 주겠다면서 기부 캠페인을 열었어요. 저도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라서 10만원을 기부했죠. 그러면서 ‘스마일도너’에 대해 알게 됐어요. 바로 다음 해에 등록했죠.”

-기분이 어땠나요.

“도움을 받던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꽤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어릴 때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지원을 받았다고요.

“2013년부터 3년 정도 서울나자렛집에서 지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동생은 장애가 있어서 시설로 바로 입소했어요. 동생과 잠깐 같이 지내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수녀님들 소개로 들어가게 됐어요. 또래 대여섯 명과 수녀님 세 분이랑 같이 살았어요.”

-스마일게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수녀님이 언젠가 우리 시설이 스마일게이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임 회사가 이런 일도 하는

구나’ 처음 알았어요.”

-어떤 지원이 기억에 남나요.

“1~2년 동안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만성 우울증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늘 우울하긴 했는데 그냥 ‘다들 힘든 거겠지’하고 넘겼거든요.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혼자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자립할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디딤씨앗통장’으로 개인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정부 지원금이랑 합쳐서 자립할 때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다가 수녀님 도움으로 LH 전세대를 받아서 한동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스마일하우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한 곳.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전 아마 학교도 중퇴했을 거예요. 수녀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후원자분들 덕분이라고, 나중에 꼭 베푸는 어른이 되라고요.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부 목표가 있나요.

“과거의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꾸준히 돕고 싶어요. 아직도 후원 받는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비싼 밥을 먹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이제 괜찮지만,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아이들이 당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최지는 더버터 기자

AI 지탱하는 뿌리산업... 청년 기술인력이 국가 경쟁력 좌우한다

» 1면 '만우 조종제 스칼라십'에서 계속

광주캠퍼스의 전예성(23)씨는 용접 기술을 전공한 장학생이다. 전씨는 졸업 전 볼보코리아에 취업해 굴착기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해외연수로 미국의 포드 공장과 비텍크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면서 “글로벌 숙련공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고, 그 꿈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장학생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 루즈 전기차 공장, 제너럴모터스(GM) 르네상스 센터를 견학하고, 필라델피아의 농업 스타트업 조르디(ZORDI), 뉴욕의 구글·메타 오피스를 방문해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학생들에게 ‘대한민국명장’은 꿈의 칭호다.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1986년 처음 만들어져 올해까지 719명이 받았다. 이 가운데 기계·금속·항공·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명장은 400명 수준이다. 2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성혁(25)씨는 “돈보다는 명예, 한 분야의 명장이 되는 게 꿈”이라며 “학위를 받고 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뒤에 석사와 박사 과정에도 도전해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2030세대도 크게 늘고 있다. 기술 수준에 따라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순으로 구분된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사 취득자 중 2030세대는 2020년 7만8359명에서 2024년 10만



6128명으로 1.3배 늘었다. 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능장의 경우 2020년 2087명에서 2024년 2994명으로 약 43.4% 증가했다.

블루칼라 없이 빅테크도 없다

‘AI 붐’은 블루칼라의 귀환으로 연결된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전기기사(Electricians)는 2024~2034년 사이 9% 증가해 연평균 8만1000명의 채용 수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배관공·배관기술자는 4% 증가로 연평균 4만4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평균 연봉은 전기기사가 6만2350달러(약 9100만원), 배관기술자 6만1550달러(약 8980만원)로 미국 중위 소득을 넘는다. 기술직의 임금 프리미엄이 재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기술직에 눈을 돌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취업률이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p 하락했다. 반면 폴리텍대 졸업생들의 지난해 기준 취업률은 79.8%로 집계됐다. 시설 자동화와 반도체 등 인기 학과는 90%를 넘는다.

청년들의 기술직 선호 현상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서도 직업전문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비영리단체 국립학생정보연구센터(NSCRC)에 따르면, 2025년 봄학기 신입생은 87만100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19.4% 증가했다. NSCRC는 직업전문대학에 신입생이 몰리는 배경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특히 전기·배관·건설·설비유지보수 등 현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공이 인기라는 분석이다.



‘만우 조종제 스칼라십’ 2기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2박3일간 비전 워크숍에 참여했다. 작은 사진은 지난해 12월 미국 진행된 해외연수 당시 구글오피스에서 진행된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기술 전문직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블루칼라 기술직이 평가 절하되고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높은 연봉과 전문성에 따른 직업 안정성이 오히려 주목받는 것이다.

강혁 사무국장은 “현장 기술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대표 직종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기술인재 양성이 과 학인재 양성에 비해 다소 외면받아 온 측면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기술직이 산업현장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이 만드는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파도에 밀려온 페어망고 플라스틱 조각을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워 담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전담 관리하는 ‘반려해변플로깅’ 현장이다. 임직원 참여율이 높아 하루 만에 수거된 해양쓰레기만 4t이 넘을 때가 있다. 공단은 올해 7코스 전담관리기관으로서 해양정화활동을 정례화하고 자구리공원, 화순 앞바다, 우도 등 제주 곳곳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공단의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 2015년 본사를 서울 강남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이후 10년째 임직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밀착형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니라 공단 구성원이 현장에서 몸으로 뚫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는 구조다.

직원들이 직접 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은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평받는 프로그램이다. 공단 임직원이 도내 학교를 방문해 메타버스와 AI(인공지능)·정보보안 등 최근 주목받는 직무 영역에 대한 구체

적인 업계 현황과 역량 개발, 취업 준비 방향성을 알려주는 강의까지 포함했다.

공단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던 것은 기획과 수행 단계에서 지역 내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하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사회공헌 사업은 제주도 교육청은 물론 제주대학교와 각 지역의 학교와 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나 지역사회 축제 등은 도청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장협의회 등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협업 활동은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인 5단계를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7월에는 국토부 지역발전 우수 사례 기관으로도 뽑혔다. 김동국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제주와 상생하는 것이 공단의 궁극적 목표”라며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임직원 주도의 자원봉사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생태 복원 실험 3년, 멸종위기종 ‘수달’이 돌아오다

현대모비스

충북 진천군 초평면 미호강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다. 한때 콘크리트 제방과 오염된 하천으로 자취를 감췄던 이곳에 수달을 포함해 참매·원앙·샛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발단은 미호강 일대에서 추진된 ‘생물 다양성 복원사업(생도진천 프로젝트)’이 2023년 시작되면서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2023년 생태계 복원 활동을 본격화했다. 자동차 부품기업이 자연 복원을 사회공헌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에 차량용 전자제품을 만드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다.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33만평(108ha) 규모의 ‘미르숲’을 조성해 진천군에 기부채납했다. 이듬해부터 시작된 생태계 복원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다. 미호종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중부 내륙 하천에만 서식하는



충북 진천 미호강 하천대청소에 참여한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가족들. [사진 현대모비스]

토종 민물고기로 미꾸라지와 어류다.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5월 친어(어미 물고기) 30마리를 확보해 개체 수 확대에 나섰다. 이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 서식지 보존기관에서 100일간 사육한 뒤 약 3~5cm 크기의 치어 3000마리 증식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5년간 진천 미호강 농다리 지점을 중심으로 방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복원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주민, 생태전문가, 임직원이 참여하

는 ‘시민·전문가 공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매년 정기 점검과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호강 생태계 종합 보고서’를 발간해 생태 변화와 보전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매년 생태전문가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미호강 생물 대탐사’를 진행했다. 탐사 결과, 수달·황조롱이·샛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11종이 발견됐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차별화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